

《碧鷄漫志》譯註(3)

이 태 형*

— <目次> —

I. 《碧鷄漫志》 제2권 역주 [2.22~2.34]

I. 《碧鷄漫志》 제2권 역주

[2.22원문] 梅苑

吾友黃載萬歌詞號《樂府廣變風》，學富才瞻，意深思遠，直與唐名輩相角逐，又輔以高明之韻，未易求也。吾每對之嘆息，誦東坡先生語曰：「彼嘗從事於此，然後知其難，不知者以爲苟然而已。」夏幾道序之曰：「惜乎語妙而多傷，思窮而氣不舒，賦才如此，反嗇其壽，無乃情文之兆歟？」載萬所居齋前，梅花一株甚盛，因錄唐以來詞人才士之作凡數百首，爲齋居之玩，命曰《梅苑》。其序引云：「呈妍月夕，奪霜雪之鮮；吐臭風晨，聚椒蘭之酷。情涯殆絕，鑒賞斯在，莫不抽毫襞彩，比聲裁句。召楚雲使興歌，命燕玉以按節。粧臺之篇，賓筵之章，可得而述焉。」《樂府廣變風》有賦梅花數曲，亦自奇特。

[2.22역] 매화 정원

내 친구 황재만(黃載萬)의 노래 가사를 《악부광변풍(樂府廣變風)》이라고 불렀다.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재능이 뛰어나며, 그 뜻은 깊고 사상 역

* 한국고전번역원 직원

시 심원하니 정말로 당대의 유명한 선인들에 비견될 만하다. 또한 고명한 시를 지어 학문을 배양했는데¹⁾ 쉽게 구하지 못하였다. 나는 매번 그의 시를 대할 때마다 감탄하며, 소식 선생의 말을 읊으며 “사람들이 일찍이 여기에 종사한 연후에야 그 어려움을 아는 법이니 모르는 사람들은 대충 지었겠구나라고 여길 뿐이다.”라고 했다. 안기도(晏幾道)는 서문에서 “애석하도다! 말이 오묘하고 슬픈 상처가 깊으며, 그 뜻은 다함이 없고 기운이 완만하지 않으니 글 짓는 재능이 이와 같지만 도리어 수명에는 인색하니 정문(情文)의 징조²⁾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황재만이 기거하는 서재의 방 앞에 매화 한 그루가 무성하였는데, 당(唐)나라 이래 사인(詞人)이나 재능있는 선비들의 작품이 이를 기록한 것이 모두 수백 수로 재실에서 살면서 감상할 거리로 삼는 것에 기인하여 「매원(梅苑)」이라 이름 붙였다. 그 서문³⁾에서는 말할길 “어여쁜 달빛 비추는 저녁에 서리와 눈의 새하얀 빛을 압도하고, 향긋한 바람 불어대는 새벽에 후추(胡椒)와 난꽃의 진한 향기를 모았다. 정감은 거의 끊어지고 감상만 여기에 남으니 붓 빼들어 아름답게 꾸며대며 소리 맞추고 시귀 다듬지 않는 이 없다. 초나라 구름⁴⁾을 불렀다 흥겹게 노래 부르게 하고 연옥(燕玉)⁵⁾을 명하여 박자를 맞추게 하

- 1) 학문을 배양했는데 : 《논어》〈안연(顔淵)〉의 “군자는 글을 강학함으로써 벗을 사귀고, 벗을 통해 자신의 인덕(仁德)을 배양한다.[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라는 말을 변형한 표현이다.
- 2) 정문(情文)의 징조 : ‘정문(情文)’은 인정(人情)과 예문(禮文)을 이른다. 예컨대, 제사에 있어서 조상을 사모하는 것은 정이고 제사를 올리는 의식은 문인데, 두 가지가 모두 구비되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예문은 죽은 이에 대한 애도의 글을 의미하므로 훌륭한 인재일수록 수명이 짧다는 속담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 3) 서문 : 원문의 ‘序引’은 다소 긴 분량의 서문인 序와 간단하게 메모형식의 소리의 병칭으로 길고 짧은 글의 서문을 의미한다.
- 4) 초나라 구름 : 원문의 ‘초운(楚雲)’은 초나라의 구름으로 남쪽의 구름을 뜻한다. 흔히 벗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그리워하는 정을 표현할 때 쓴다.
- 5) 연옥(燕玉) : 옥처럼 아름다운 연(燕)나라 땅의 여인이란 말로 미인을 뜻한다. 연나라 땅에 미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송(宋)나라 한림 학사(翰林學士) 도곡(陶穀)이 일찍이 당 태위(黨太尉) 집에 있었던 기생을 얻었다.

니, 화려한 누대를 채운 시편과 연회의 문객⁶⁾이 지은 문장을 얻어서 서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악부광변풍》에 매화에 관한 곡이 몇 편 있는데, 이 또한 특별히 기이하고 독특하다.

[2.23원문] 蘭畹曲會

《蘭畹曲會》, 孔甯極先生之子方平所集。序引稱無爲、莫知非, 其自作者稱魯逸仲, 皆方平隱名, 如子虛、烏有、亡是之類。孔平日自號滄皐漁父, 與姪處度齊名, 李方叔詩酒侶也。

[2.23역] 난원곡회(蘭畹曲會)

《난원곡회(蘭畹曲會)》는 공영극(孔甯極) 선생의 아들인 공방평(孔方平)이 모은 것이다. 서문에서는 무위(無爲)나 막지비(莫知非) 등으로 불렀고 스스로 지은 필명은 노일중(魯逸仲)이라 칭하였는데, 모두 공방평의 가명이니, 자허(子虛), 오유(烏有), 무시(亡是)⁷⁾ 등과 같은 가공의 부류이다. 공방평은 평소에 스스로 치고어부(滄皐漁父)라는 호를 지었는데, 그 조카 공처도(孔處度)와 함께 명성이 비등하였으며, 이방숙(李方叔)과 시와 술을 함께하는 벗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눈 녹인 물로 차를 끓이면서 “당 태위 집에는 이러한 풍류를 몰랐겠지?” 하였다. 기생이 “그는 거친 사람이니, 어찌 이러한 풍류가 있겠습니까. 다만 따뜻한 소금장 안에서 잔에 얹게 술을 따라 마시고 가기(歌妓)의 나직한 노래를 들으며 양고주(羊羔酒)를 마실 줄 알 뿐입니다.” 하니, 도곡이 부끄러워했다. 《綠窓新話》

- 6) 연회의 문객 : 원문 “賓筵”은 손님을 대접하는 대자리로 우리나라에서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교관인 빈객(賓客)을 가리키나, 여기에서는 문사들을 초청하여 문예를 겨루는 연회의 장소로 쓰였다.
- 7) 자허(子虛), 오유(烏有), 무시(亡是) : 한나라의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자허부(子虛賦)>에서 자허, 오유선생, 무시공(亡是公)이라는 가공의 세 인물을 설정하여 문답을 전개했는데, 자허는 ‘빈말’이라는 뜻이고 오유 선생은 ‘무엇이 있느냐’는 뜻이고 무시공은 ‘이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후세에 허무한 일을 말할 때 흔히 자허·오유라 하였다.

[2.24원문] 大晟樂府得人

崇寧間建大晟樂府，周美成作提舉官，而製撰官又有七。萬俟詠雅言，元祐詩賦科老手也，三舍法行，不復進取，放意歌酒，自稱大梁詞隱。每出一章，信宿喧傳都下，政和初召試補官，置大晟樂府製撰之職。新廣八十四調，患譜弗傳，雅言請以盛德大業及祥瑞事迹製詞實譜，有旨依月用律，月進一曲，自此新譜稍傳。時田爲不伐亦供職大樂，眾謂樂府得人云。

[2.24역] 대성악부(大晟樂府)에서 인재를 얻다

송녕(崇寧) 연간에 대성악부⁸⁾를 지어 주방언이 제거관(提舉官)이 되었고 제찬관(製撰官)이 또 일곱이나 있었다. 만사영 아언(萬俟詠 雅言)⁹⁾은 원우(元祐) 연간에 시부(詩賦)의 원로 가수이다. 삼사법(三舍法)¹⁰⁾을 시행하였지만 다시 태학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낌 없이 노래하고 술 마시며 스스로를 대량사은(大梁詞隱)이라고 불렀다. 매번 사(詞) 한 장을 지어낼 때마다 이들도 안 되어 도성 안에 파다하게 퍼졌다. 정화(政和) 초에 시보관(試補官)에 초빙되어 대성악부 제찬(製撰)의 직임에 배치되었다. 84개 곡

8) 대성악(大晟樂) : 송나라의 대성부(大晟府)에서 만든 아악(雅樂)으로, 궁중의 제례 의식 때 연주하는 아악(雅樂)을 말한다. 고려에는 예종 11년(1116)에 왕자지(王子之)와 문공미(文公美)가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송 휘종이 신악인 대성악을 하사하여 받아 가지고 와 전해졌다. 송 휘종(宋徽宗) 송녕(崇寧) 3년(1104)에 설치한, 음악을 관장하는 기관인 대성부(大晟府)에서 제정한 신악(新樂)의 이름이다. 《宋史 卷129 樂志4》

9) 만사영 아언(萬俟詠 雅言) : ‘萬俟’는 복성이다. 북송 말 남송 초기의 사인(詞人)이다. 자는 아언(雅言)이고 자호는 사은(詞隱), 대량사은(大梁詞隱)이라 하였다. 생몰년은 미상이다. 철종 원우(元祐) 연간에 시부로 명성을 얻었다. 급제하지 못하다가 휘종 정화(政和) 초기에 시보관으로 초빙되어 대성부(大晟府) 제찬(製撰)에 제수된다. 음률을 잘 다루어 스스로 새로운 성률을 지어낼 수 있었다. 사(詞)는 유영(柳永)에게 배웠다. 현재 27수의 사가 남아있다.

10) 삼사법(三舍法) : 송나라 신종(神宗) 때 왕안석(王安石)이 시행한 신법(新法)의 하나로, 태학(太學)에 외사(外舍)·내사(內舍)·상사(上舍)를 두고, 생원(生員)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한 연한과 조건에 따라 외사에서 내사로 올라가고 이어서 내사에서 상사로 올라가게 하여 발해(發解)와 예부시(禮部試)·소시(召試)를 면제하고 급제시켜서 관직에 임명하였음.

조를 새롭게 확대하였는데 악보가 세상에 전해지거나 없을까 걱정하였다. 만사영이 성대한 덕업(德業)과 상서로운 사적(事迹)으로 가사를 지어 악보를 채우도록 요청하였고, 월용률(月用律)¹¹⁾에 의거하여 달마다 한 곡조씩 올리도록 하는 성지(聖旨)가 내려서 이때부터 새로운 악보가 조금씩 전해지게 되었다. 당시 전위(田爲)¹²⁾ 역시 대성악부에 함께 직무를 맡아서 사람들은 ‘대성악부가 인재를 얻었다’라고 말하였다.

[2.25원문] 易安居士詞

易安居士，京東路提刑李格非文叔之女，建康守趙明誠德甫之妻。自少年便有詩名，才力華瞻，逼近前輩，在士大夫中已不多得，若本朝婦人，當推詞采第一。趙死，再嫁某氏，訟而離之，晚節流蕩無歸。作長短句能曲折盡人意，輕巧尖新，姿態百出，閭巷荒淫之語，肆意落筆，自古搢紳之家能文婦女，未見如此無顧籍也。陳後主游宴，使女學士狎客賦詩相贈答，采其尤艷麗者被以新聲，不過「璧月夜夜滿，瓊樹朝朝新」等語。李戡嘗痛元白詩纖艷不逞，非莊士雅人，多爲其破壞。流于民間，子父女母，交口教授，淫言媠語，冬寒夏熱，入人肌骨，不可除去。二公集尚存，可考也。元與白書，自謂近世婦人，暈淡眉目，縮約頭髮，衣服脩廣之度，及匹配色澤，尤劇怪艷，因爲艷詩百餘首，今集中不載。元《會真詩》，白《夢游春詩》，所讀纖艷不逞，淫言媠語，止此耳。溫飛卿號多作側辭艷曲，其甚者：「合歡桃核終堪恨，裏許元來別有人」，「玲瓏骰子安紅豆，入骨相思知不知」，亦止此耳。今之士大夫學曹組諸人鄙穢歌詞，則爲艷麗如陳之女學士狎客，爲纖艷不逞淫言媠語如元白，爲側詞艷曲如溫飛卿，皆不敢也。其風至閨房婦女，誇張筆墨，無所羞畏，殆不可使李戡見也。

11) 월용률(月用律) : 1년 12달에 따라 적용하는 악률.

12) 전위(田爲) : 전위(田爲)의 字는 불벌(不伐)이고, 생졸년은 未詳이다.

[2.25역] 이안거사의 사

이칭조는 경동(京東) 노제형(路提刑) 이격비(李格非)(자는 文叔)의 딸로, 건강(建康)태수 조명성(趙明誠)(자는 德浦)의 부인이었다. 어릴 때부터 시로 이름을 날렸고 재능이 뛰어나서 가히 전 선인들에 비할 정도였다. 사대부 중에도 드물 정도이며 만일 현 왕조의 부인이었으면 응당 그 사의 재능이 으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명성이 죽자 다른 이에게 재가하여 비난을 받고 이를 떠나 만년에는 정치 없이 떠돌았다고 한다. 장단구를 짓는데 그 구구절절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능수능란하고 빼어나고 새로우며 자태가 각양각색으로, 민간의 방탕한 말들을 섞고 제멋대로 붓을 대어 예부터 양각집의 글재주 있는 귀부인 중에서 이처럼 출신을 개의치 않는 이는 본 적이 없다. 남조의 진(陳) 황제가 연회를 베풀어 놀면서 여인더러 놀러 온 학사(學士)와 시를 지어 서로 화답토록 하여,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해 새로운 곡조로 만들었으나 ‘옥같이 둥근 달이 밤마다 그득하고, 옥 같은 나무는 아침마다 새롭구나.’ 등의 말에 지나지 않았다. 이 감(李戡)은 일찍이 원진(元稹)과 백거이(白居易)의 시에 담긴 농염한 아름다움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 장중하지 못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통탄하였다. 민간에 전해지고 난 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문란한 말과 버릇없는 말이 더해져 사시사철 사람들의 뺨속까지 스며들어 지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시집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고찰해 볼 만하다. 원진과 백거이의 글은 특히 근세의 부인들의 아찔하게 얽은 눈썹과 눈, 매듭을 틀어 올린 머리, 옷의 폭과 그에 맞춘 빛깔과 광택까지 말하고 있어 특히나 독특하고 농염한데, 이러한 시들이 백 여 수이나 현재 시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원진의 ‘회진시(會眞詩)’나 백거이의 ‘몽유춘시(夢遊春詩)’가 소위 농염한 아름다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문란하고 버릇없는 말에 그쳤던 시이다. 온정균은 농염한 사와 곡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 심한 것은, “두 갈래가 하나로 합쳐진 복숭아와 호두 속에 씨를 심어놓았듯, 너의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을 담아두었네.” “영롱한 주사위에 팔을 달았는데, 뺨에 사무치게 그리운 것을 아는지 모르

는지.” 등이 있는데 역시 이에 그칠 뿐이다. 오늘날 사대부들은 조조(曹組) 등의 더럽고 불결한 가사를 배워, 그 농염하기가 진시황의 여학사 유객과도 같고, 문란하고 버릇없기가 원진과 백거이와 같으며, 그 사의 농염한 곡조가 온정균과 같아 그 문풍이 규방 아녀자에게까지 이르렀으니 허황된 글은 수치스러움을 무르니 이감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2.26원문] 六人賦木犀

向伯恭用《滿庭芳》曲賦木犀, 約陳去非、朱希真、蘇養直同賦, 「月窟蟠根, 雲巖分種」者是也。然三人皆用《清平樂》和之。去非云: 「黃衫相倚, 翠葉層層底。八月江南風日美, 弄影山腰水尾。楚人未識孤妍, 《離騷》遺恨千年。無住庵中新事, 一枝喚起幽禪。」希真云: 「人閑花少, 菊小芙蓉老。冷淡仙人偏得道, 買定西風一笑。前身元是江梅, 黃姑點破冰肌。只有暗香猶在, 飽參清似南枝。」養直云: 「斷崖流水, 香度青林底。元配騷人蘭與芷, 不數春風桃李。淮南叢桂小山, 詩翁合得躋攀。身到十洲三島, 心游萬壑千巖。」後伯恭再賦木犀, 亦寄《清平樂》贈韓璜叔夏云: 「吳頭楚尾, 踏破芒鞋底。萬壑千巖秋色裏, 不奈惱人風味。如今老我薌林, 世間百不關心。獨喜愛香韓壽, 能來同醉花陰。」韓和云: 「秋光如水, 釀作鵝黃蟻。散入千巖佳樹裏。惟許脩門人醉。輕鉤重上風鬢, 不禁月冷霜寒。步障深沉歸去, 依然愁滿江山。」初, 劉原父亦于《清平樂》賦木犀云: 「小山叢桂, 最有留人意, 拂葉攀花無限思, 雨濕濃香滿袂。別來過了秋光, 翠簾昨夜新霜。多少月官閑地, 姮娥借與微芳。」同一花一曲, 賦者六人, 必有第其高下者。

[2.26역] 여섯 사람이〈木犀〉사를 짓다.

向子諲이 〈滿庭芳〉곡을 사용하여 木犀를 썼다. 陳與義, 朱敦儒, 蘇養直이 같은 부(賦)를 짓기로 약속했다. “月窟蟠根, 雲巖分種” 구절이 모두 이것이다. 그러나 세 사람은 모두 〈청평락(淸平樂)〉사에 화운해서 지었다. 진여의가 말하길 “견우성은 서로 의지하고, 비취색 더부룩한 풀이 층층이 낮게 우거져 있다. 8월 강남의 바람과 해는 아름답고, 산허리와 물 후미

그림자가 희롱하네. 초나라 사람은 아직 홀로 아름다운 것을 알지 못하네. 《이소(離騷)》에 천년의 한을 남겼다. 무주암(無住庵)에 살면서 새로운 일이 없고, 한 나뭇가지로 그윽하고 고요함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다. 주돈유가 말하길 “사람은 한가하고 꽃은 적고, 국화는 어리고 부용꽃은 늙었다. 차갑고 담박한 仙人은 두루 도를 얻었고, 정해서 西風을 사고 한번 웃었다. 전신은 본디 강가의 매화였고, 건우성 점이 얼음같은 피부를 상하게 했다. 다만 그윽한 향기는 여전히 그대로 나고, 혼탁한 마음은 남쪽가지와 같이 물리네.”라고 했다. 소양직(蘇養直)이 말하길 “끊어진 바위 강기슭에 흐르는 물, 향기는 푸른 숲의 밑바닥까지 퍼진다. 황후 근심이 서려있는 사람 난초와 지초, 봄바람과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를 셀 수가 없구나. 淮南의 계수나무가 모여있는 작은산, 시옹(詩翁)은 함하여 붙잡고 매달려 올라갔다. 몸은 십주(十洲) 삼도(三島)에 이르렀고, 마음은 만개의 골짜기와 천개의 바위 기슭에서 노닐었다.”라고 했다. 이후에 향자연(向子諲)이 다시 〈목서(木犀)〉사를 써서 또한 〈청평락(淸平樂)〉에 붙여 한황(韓璜)에게 주면서 말하길 “오지방의 어귀 초나라의 꼬리, 까끄라기 신발 밑창을 밝아 헤졌다. 만개의 골짜기 천개의 바위 기슭에 가을색이 안으로 들어왔다. 어찌 사람의 풍미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늙은 나는 향기 나는 수풀 같고,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다. 오직 한수(韓壽)만 좋아하고 아꼈는데, 능히 와서 함께 꽃그늘에서 취했다.”라고 했다. 한화(韓和)가 말하길 “가을빛은 물과 같고, 누렁고 검은 거품이 나는 술을 빚었다. 천개의 바위 낭떠러지에 아름다운 절경이 있다. 유독 허수(許儵)의 문인만 취했다. 가벼운 비녀위에 거둬 바람 불어 살쩍머리가 었혔고, 차마 달이 차갑고 서리가 차가움을 금할 수 없다. 걸다가 장애물이 있어 깊이 가로막혀 되돌아갔는데, 의연한 근심은 강산에 가득하다.”라고 했다. 처음에 유원부(劉原父) 역시 〈청평락(淸平樂)〉사조를 사용하여 〈목서(木犀)〉을 지었는데 말하길 “작은 산에 모여있는 계수나무, 가장 좋은 것은 남의 뜻이 남아있는 것이고, 입이 치켜 올라 꽃을 기어오르니 그리움이 끝이 없고, 비는 비가 많이 내려 추축하고 향기는 소매에 가득하다. 오는 가을빛을 지나치지

말아라! 비취색 주렴은 어제 밤 새로운 서리를 만들었다. 달나라 궁전이 얼마나 한가로운 땅인가! 항아(姮娥)를 빌려 작은 방초를 주었다.”라고 했다. 같은 하나의 꽃과 하나의 노래를 여섯 사람이 쓴 것은, 반드시 그 높고 낮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2.27원문] 紫姑神詞

正宮《白苧》曲賦雪者，世傳紫姑神作。寫至「追昔燕然畫角，寶鑰珊瑚，是時丞相，虛作銀城換得」，或問出處，答云：「天上文字，汝那得知。」末後句「又恐東君，暗遣花神，先到南國。昨夜江梅，漏泄春消息」，殊可喜也。予舊同僚郝宗文，嘗春初請紫姑神，既降，自稱蓬萊仙人玉英，書《浪淘沙》曲云：「塞上早春時，暖律猶微，柳舒金綫拂回堤。料得江鄉應更好，開盡梅溪。晝漏漸遲遲，愁損仙肌。幾回無語斂雙眉。凭偏欄杆十二曲，日下樓西。」

[2.27역] 자고신의 사

정궁조(正宮調)인 〈백저(白苧)〉곡은 하얀 눈을 노래한 것으로, 〈자고신(紫姑神)〉 작품을 지었다고 세상에 전해진다. 필사본에 “옛날 주연을 베풀 때의 나팔소리를 추억하고, 보배로운 산호 자물쇠, 당시에 승상이었는데, 가짜 돈을 만들어 성을 바꾸어 얻었네.”라고 까지 쓰여져 있다. 어떤 사람이 출처를 물었는데 답하여 말하길 “천상의 문자를 네가 어찌 알았느냐?”라고 했다. 마지막 구절에 “또한 아마 동군(東君)인 것 같고, 몰래 보낸 꽃의 신으로 먼저 남국(南國)에 이르렀다. 어제 밤 강가의 매화는 조금씩 스며들어(새어나와) 봄소식을 전하네.”라고 되어 있는데 가히 뛰어나서 즐거울 만하다. 나의 옛 동료 학종문(郝宗文)이 일찍이 봄에 처음으로 자고신(紫姑神)을 초청했다. 땅으로 내려가 스스로 봉래산(蓬萊山)의 선인(仙人)인 옥영(玉英)이라고 칭했다. 책에서는 〈낭도사(浪淘沙)〉사에서 말하길 “변방에 임금이 이른 봄에 이르렀을 때, 따뜻함은 오히려 미미했네. 버들나무 가지를 피서 금실로 제방 뚝을 돌아오며 털었다. 누가 강이 있는 고

향을 얻은 것이 응당 더 좋은 것을 해야겠을까? 계곡의 매화는 다 피었다. 낮이 스며들어 점점 길어지고, 근심은 신선의 피부를 해롭게 하네. 몇 번이나 말없이 두 눈썹을 모았다. <난간십이곡(欄杆十二曲)>에 의지하고, 해는 누각 서쪽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다.

[2.28원문] 沈公述詞

沈公述爲韓魏公之客，魏公在中山，門人多有賜環之望。沈秋日作《霜葉飛》詞云：「謾贏得相思甚了，東君早作歸來計。便莫惜丹青手，重與芳菲，萬紅千翠。」爲魏公發也。

[2.28역] 심공술의 사

심공술(沈公述)은 한 위공(韓魏公)¹³의 문객이 되었다. 한위공이 중산(中山)에 있었는데 문인 중에는 사환(賜環)의 은혜¹⁴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다. 심공술이 가을날에 <상엽비(霜葉飛)>사를 지었다.

부질없이 너무나도 그립기도 하고	謾贏得相思甚了
봄 ¹⁵ 이 빨리 찾아오니 돌아갈 생각이네	東君早作歸來計
곱디고운 섬섬옥수 아쉬워 마오	便莫惜丹青手
향기로운 풀과 함께	重與芳菲
울긋불긋 화려하구려!	萬紅千翠

13) 한 위공(韓魏公) : 송나라 때의 재상 한기(韓琦, 1008~1075)를 말한다. 당시에 범중엄(范仲淹, 989~1052)과 훌륭한 재상으로 명망을 나란히 하였고,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다. <宋史 卷312 韓琦列傳>

14) 사환(賜環)의 은혜 : 신하가 사면을 받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순자(荀子)> 대략(大略)에 “임금이 조정을 떠난 신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결별하는 뜻을 보일 때에는 한쪽이 떨어진 패옥을 보내고,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일 때에는 고리가 완전히 이어진 옥환을 보낸다.[絕人以玦 反絕以環]”라는 말이 나온다.

15) 봄 : 동군(東君)은 봄을 맡은 신(神)을 일컫는다.

라고 하였는데 한위공을 위해 말한 것이다.

[2.29원문] 賀方回石州慢

賀方回《石州慢》, 予舊見其稿, 「風色收寒, 雲影弄晴」改作「薄雨收寒, 斜照弄晴」。又「冰垂玉筋, 向午滴瀝檐楹, 泥融消盡牆陰雪」改作「煙橫水際, 映帶幾點歸鴻, 東風消盡龍沙雪」。

[2.29역] 하주의 석주만

하주(賀鑄)의 〈석주만(石州慢)〉을 내가 옛날에 그 원고를 보았는데, “바람 빛에 한기 서리고, 구름 그림자에 맑은 날씨 찾아왔네.”라는 구절을 “보슬비에 한기 서리고, 비긴 햇빛에 맑은 날씨 찾아왔네.”라고 고쳤다. 또 “새하얀 고드름 드리우고, 한낮 되니 처마 기둥에 푹푹 떨어지고, 담장 그늘에 쌓인 눈 모조리 녹아내렸구려.”를 “수평선에 물안개 퍼지고, 몇몇 돌아오는 기러기에 그림자 어어지는데, 봄바람 불어 용사(龍沙)¹⁶의 눈 다 녹아내리누나.”라고 고쳤다.

[2.30원문] 宇文叔通詞

宇文叔通久留虜中不得歸, 立春日作《迎春樂》曲云: 「寶幡綵勝堆金縷。雙燕釵頭舞。人間要識春來處, 天際雁, 江邊樹。故國鶯花又誰主, 念憔悴, 幾年羈旅。把酒祝東風, 吹取人歸去。」

[2.30역] 우문숙통(宇文叔通)의 사

우문허중(宇文虛中)¹⁷은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귀국하지 못했는데, 입춘

16) 용사(龍沙): 중국 서북쪽 변방인 백룡퇴(白龍堆)와 사막(沙漠)을 합칭한 말이다. 이백(李白)의 시에 “장군은 호족을 나누고, 전사는 용사에 누웠네(將軍分虎竹 戰士臥龍沙)”라고 하였다. 《李太白文集 卷4 塞下曲》

17) 우문허중(宇文虛中): 1079~1146, 본래 송(宋) 나라 사람으로 자는 숙통(叔通), 호는 용계(龍溪)이고 청두(成都) 사람이다. 송 휘종(徽宗) 때 동관(童貫) 등이 여진(女眞)과 연합하여 거란(契丹)을 협공(夾攻)하자고 권의하는 것을 그가 적

에 〈영춘악(迎春樂)〉¹⁸⁾ 곡을 지었다.

화려한 두건과 머리장식 ¹⁹⁾ 에 금실 쌓이고	寶幡綵勝堆金縷
제비 한 쌍 머리 장식 꽃아 춤추네	雙燕釵頭舞
인간 세상에 봄 도래한 곳 알려주니	人間要識春來處
하늘 끝 기러기와 강변의 나무로다	天際雁江邊樹
고국의 피꼬리와 꽃 ²⁰⁾ 은 또 누가 주인인가	故國鶯花又誰主
초췌해진 이 몸 타향살이 몇 해던가	念惟悴幾年羈旅
술잔 들어 봄바람 기원하노니	把酒祝東風
바람 불어 나를 돌아가게 해주오	吹取人歸去

[2.31 원문] 周美成點絳脣

周美成初在姑蘇，與營妓岳七楚雲者游甚久，後歸自京師，首訪之，則已從人矣。明日飲於太守蔡繼子高坐中，見其妹，作《點絳脣》曲寄之云：「遶鶴西歸，故鄉多少傷心事。短書不寄，魚浪空千里。憑仗桃根，說與相思

극 반대하였으나 결국 듣지 않고 싸우다가 꽤한 적이 있었고, 송나라가 남도(南渡)한 뒤 고종 건염 2년(1128)에 거란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었다가 금나라에 출사하여 예부상서, 한림학사승지를 역임하고 하내군 개국공(河內郡開國公)에 봉해지고 ‘국사(國師)’로 존중받았다. 무함을 입어 온 가족이 불타 죽었고, 자신은 피살당하였다. 《宋史 卷371》

- 18) 영춘악(迎春樂) : 우문허중의 시사는 당시에 큰 추앙을 받았는데, 이 시사는 그의 대표작이다. 작자는 이역에서 봄을 맞이하여 고국에서 찬란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고국을 그리는 꿈을 꾸고 또 고국의 존망을 걱정하였다. 현재를 생각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며 차마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오히려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작자의 필봉은 변화무쌍하여 시적 표현이 과란만장하여 금나라 시사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졌다.
- 19) 화려한 두건과 머리장식 : 원문의 ‘寶幡綵勝’은 금박(金箔)을 입혀서 제작한 번승(幡勝)을 가리킨다. 번승이란 곧 입춘일(立春日)에 봄이 온 것을 경축하는 의미로 머리에 꽂았던 채색 조화(造花)로, 옛날 풍속에 입춘 때마다 대궐에서 여러 조관(朝官)들에게 이것을 하사했다고 한다.
- 20) 피꼬리와 꽃 : 앵화(鶯花)는 피꼬리와 꽃으로, 봄날의 풍경을 뜻한다. 두보의 〈배이재주……(陪李梓州……)〉 시에 “앵화는 세계를 따른다.[鶯花隨世界]” 하여, 가는 곳마다 피꼬리와 꽃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세계는 불교 용어이다.

意。愁何際，舊時衣袂，猶有東風淚。」

[2.31] 주방언의 점강순

주방언(周邦彥)²¹⁾이 처음에 고소(姑蘇)에 있을 때 관기(官妓)인 악칠초운(岳七楚雲)과 아주 오랫동안 유희를 즐겼다. 나중에 서울로 돌아갔다가 제일 먼저 그녀를 방문하였는데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 다음 날 태수 채만자(蔡巒子)와 함께 높은 곳에서 술 마시며 그 여동생을 보고는 <점강순(點絳脣)>곡을 지어 주었다.

요동학(遼東鶴) ²²⁾ 서쪽으로 돌아가니	遼鶴西歸
고향 생각에 얼마나 마음 아팠느냐	故鄉多少傷心事
짧은 편지조차 부치지 못하네	短書不寄
소식이 없이 ²³⁾ 천리 멀리 떨어져	魚浪空千里
복숭아나무 지팡이에 기대어	憑仗桃根

21) 주방언 : 북송대의 문학가로 생졸년은 1056~1121이다. 자는 미성(美成), 호는 청진거사(清真居士)이며 전당(錢塘 : 지금의 항저우) 출신이다. 젊었을 때는 방탕한 생활을 했으나, <변도부(汴都賦)>를 헌정하고 관직에 올라 휘종(徽宗) 때 대성악부(大晟樂府)에 등용되었다. 음률에 정통하여 악곡을 짓기도 했다. 대성악부로 재직할 때 여러 종류의 신곡을 만들었으며 사(詞)의 율조를 더욱 정밀하게 했다. 대표작으로는 <난릉왕(蘭陵王)>·<만정방(滿庭芳)>·<육축(六丑)>·<서하(西河)> 등이 있다. 그는 선인들의 시귀를 옹화하여 사에 운용하는 데 특히 뛰어났으며, 사물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다. 만사(慢詞)는 완곡하고 구성지며, 소령(小令) 또한 청신하고 미려하며 자연스럽다. 북송 사의 집대성자로 추앙받고 있다. 저서로는 《청진사(清真詞)》가 있다.

22) 요동학(遼東鶴) : 요동(遼東) 사람 정영위(丁令威)가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서 천 년 만에 요동에 돌아와 화표주(華表柱)에 내려앉았다는 요동학(遼東鶴)의 전설을 인용한 것이다. 《搜神後記 卷1》

23) 소식이 없이 : 어랑(魚浪)은 물고기가 일으키는 물결로, 물결이 비었다는 것은 서신이 끊겨 소식이 단절될 것이라는 말이다. 한(漢)나라 때의 악부(樂府)인 <음마장성굴행(飲馬長城窟行)>에 “나그네가 멀리서 찾아와 내게 잉어 한 쌍을 주고 가기에, 아이 불러 잉어를 삶게 했더니 배 속에 한 자의 비단 편지가 있네.[客從遠方來，遺我雙鯉魚，呼童烹鯉魚，中有尺素書.]”라고 한 데서 나왔다. 《文選註 卷27》

그리운 마음을 담아 말해보네	說與相思意
이 수심 언제 끝나려나	愁何際
그 옛날 헤어질 때 입던 옷 소매엔	舊時衣袂
아직 봄바람 남아 눈물 자아내구나	猶有東風淚

[2.32원문] 何文縝詞

何文縝在館閣時，飲一貴人家，侍兒惠柔者解帕子爲贈，約牡丹開再集。何甚屬意，歸作《虞美人》曲，曲中隱其名云：「分香帕子揉藍賦，欲去殷勤惠。重來宜待牡丹時，只恐花知，知後故開遲。別來看盡閑桃李，日日欄杆倚。催花無計問東風，夢作一雙蝴蝶遶芳叢。」何書此曲與趙詠道，自言其張本云。

[2.32역] 하문진의 사

하울(何栗)²⁴이 관각(館閣)에 재직할 때에 어느 부자 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다. 혜유(惠柔)라고 하는 시녀가 머리띠를 풀어서 선물하였는데, 모란꽃이 필 때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였다. 서로 얼마나 깊이 마음을 주었는지 돌아갈 때 〈우미인(虞美人)〉곡을 지어 주었는데 곡 중에서 그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향긋한 머리띠 풀어 쪽빛이 반들거리니	分香帕子揉藍賦
떠나려는데 온정이 은근하구나	欲去殷勤惠
다시 오면 모란꽃 필 때가 되겠지만	重來宜待牡丹時
오직 모란꽃이 약속을 알고서	只恐花知

24) 하문진(何文縝) : 하울(何栗)로 생졸년은 1089~1127이다. 字는 문진(文縝)이고, 사천성 인수(仁壽) 사람이다. 휘종 정화(徽宗政和)5년(1115년)에 진사가 되었다. 비서성교서랑(秘書省校書郎), 경기학사(京畿學事) 등에 제수되었고, 중서사인(中書舍人)을 역임했다. 왕보(王黼)의 탄핵으로 인하여 태주(泰州)의 지사가 되었다. 흠종이 옹립되자 다시 중서사인으로 복권되었고 이후 한림학사로 천거되었다. 정강(靖康) 2년에 휘종과 흠종이 금나라 오랑캐에 포로로 잡혀 북으로 끌려가서 금영(金營)에 도착한 후 곡끼를 끊어 서른아홉살에 죽었다. 《宋史》 卷353.

약속을 안 뒤에 짐짓 더디 피울까 두려다네	知後故開遲
이별하고 모두 시든 복숭아꽃 보았지만	別來看盡開桃李
날이면 날마다 난간에 기대어	日日欄杆倚
꽃 재촉하려 해도 봄바람에게 물을 방법 없나니	催花無計問東風
꿈에서 한 쌍의 나비 꽃떨기 맴돈다네	夢作一雙蝴蝶遶芳叢

하율이 이 곡조를 적어서 조영도(趙泳道)에게 주면서 곡의 장본인(張本人)을 스스로 밝혔다고 한다.

[2.33원] 王彥齡夫婦詞

王齊叟彥齡, 元祐副樞巖叟之弟, 任俊得聲。初官太原, 作《望江南》數十曲嘲府縣同僚, 遂併及帥, 帥怒甚, 因眾入謁, 面責彥齡: 「何敢爾! 豈恃兄貴, 謂吾不能劾治耶?」彥齡執手板頓首帥前曰: 「居下位, 只恐被人讒。昨日只吟《青玉案》, 幾時曾做《望江南》? 試問馬都監。」帥不覺失笑, 眾亦匿笑去。今《別素質》曲「此事憑誰知證, 有樓前明月, 窗外花影」者, 彥齡作也。娶舒氏, 亦有詞翰。婦翁武選, 彥齡事之素不謹。因醉酒慢罵, 翁不能堪, 取女歸, 竟至離絕。舒在父家, 一日行池上, 懷其夫, 作《點絳脣》曲云: 「獨自臨流, 興來時把欄干凭。舊愁新恨, 耗卻來時興。鷺散魚潛, 煙斂風初定。波心靜, 照人如鏡, 少個年時影。」

[2.33역] 왕언령 부부의 사

왕제수(王齊叟)²⁵⁾는 자가 언령(彦齡)으로, 원우(元祐)²⁶⁾ 연간의 추밀원 부장관인 왕암수(王巖叟)²⁷⁾의 동생이다. 말은 일에 뛰어나서 명성을 얻었

25) 왕제수(王齊叟): 왕제수는 자가 언령(彦齡)으로 회주(懷州) 사람이다. 재주가 좋고 형식에 구속 받지 않고 가사를 지었다. 태원 지방의 속관이 되었을 때, 이미 《청옥안(青玉案)》, 《망강남(望江南)》 두 수의 가사를 채워 넣어 태원을 감찰하는 고관을 조롱하기도 하였다.

26) 원우(元祐): 철종(哲宗)의 연호로 1086~1094년까지를 말한다.

27) 왕암수(王巖叟): 1044~1094. 송(宋)나라 사람으로 자는 언림(彦霖), 시호는 공간(恭簡)으로 대명(大名) 청평(淸平) 사람이다. 숨김 없이 직간(直諫)한 것으로

다. 처음에 태원(太原)에서 관직 생활을 하며〈망강남(望江南)〉수십 수를 지었는데 관부와 관료들을 조롱하며 심지어는 장수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하였다. 장수들은 매우 노하며 관료들을 모아놓고 왕제수 면전에서 말했다. “감히 어찌 그러할 수 있는가? 형의 높은 지위를 등에 업었다고 해서 내가 너의 죄를 묻지 못하리라 생각했는가?”라고 했다. 왕제수는 형장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내 관직이 더 아래이니 다른 이가 참서할까 두렵소. 어제는 〈청옥안(靑玉案)〉사만 읊었는데〈망강남(望江南)〉사는 언제 지어졌다는 말이오, 마도감(馬都監)에게 묻습니다.”라고 했다. 마도감은 자기도 모르게 웃었고, 대중들도 몰래 비웃으며 떠났다. 오늘날 〈별소질(別素質)〉곡이 있어 “이 일을 누구에 의해 증명할 것입니까? 오직 누각 앞에 밝은 달 창문밖에 꽃 그림자 있네.”라고 했다. 서씨를 아내로 맞고 또한 서한이 있었는데 장인은 무관으로, 왕제수는 일을 하는데 공손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욕을 하자, 장인은 참지 못하고 딸을 데리고 돌아오니 이로써 이별하게 되었다. 서씨는 부친의 집에서 어느 날 호수를 걷다가 남편이 그리워 〈점강순(點絳脣)〉 곡을 지어 부르니 “홀로 호수근처에서 울적하여, 난간 붙잡고 기대어, 옛 수심과 새로운 한, 매년 이어짐을 날려 버린다. 백로 흩어지고 물고기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안개 속 험한 바람 막 잠잠해지자, 일렁이는 마음도 가라앉고, 거울처럼 나를 비추네. 소녀시절의 모습들.”라고 했다.

[2.34] 莫少虛詞

《水調歌頭》：「瑤草一何碧，春入武陵溪。溪上桃花無數，花上有黃鸝。」世傳爲魯直于建炎初見石耆翁言，此莫少虛作也。莫此詞本始，耆翁能道其詳。予嘗見莫《浣溪沙》曲：「寶釧細裙上玉梯，雲重應恨翠樓低。愁同芳草兩萋萋。」又云：「歸夢悠颺見未真，繡衾恰有暗香薰。五更分得楚臺春。」造語

유명하며, 그가 지은 홍범삼덕론(洪範三德論)은 정치의 기본을 밝힌 것임. 원우 삼당 중에 삭당(朔黨)의 영수로 당수로는 양도(梁燾)·범조우(范祖禹)·오안시(吳安詩)·유안세(劉安世)·문언박(文彥博) 등이 있다.

頗工。晚年心醉富貴，不復事文筆。

[2.34역] 막소허의 사

〈수조가두(水調歌頭)²⁸⁾〉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아름다운 풀이 어찌나 한결같이 푸르니 ²⁹⁾	瑤草一何碧
무릉도원 계곡 ³⁰⁾ 에 봄이 찾아 왔구나	春入武陵溪
계곡 위 복사꽃은 수없이 피었고	溪上桃花無數
꽃밭 속 피꼬리는 노래하네	花上有黃鸝

세상에 전해지기를 황정견(黃庭堅)이 건염(建炎)³¹⁾3) 연간에 석기옹(石耆翁)을 처음 만나서 말한 것으로 막소허(莫少虛)가 이것을 사로 지었다. 막소허가 지은 이 사의 처음과 끝은 석기옹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일찍이 막소허가 지은 〈완계사(浣溪沙)〉를 본 적이 있다.

보물 팔찌 담황색 치마 입고 옥계단 올라	寶釧緗裙上玉梯
구름 겹쳐져 푸른 빛 누각보다 낮아 한이로다	雲重應恨翠樓低

28) 수조가두(水調歌頭) : 사패(詞牌)의 이름으로, 수 양제(隋煬帝)가 변하(汴河)를 개통할 때 〈수조가(水調歌)〉를 지었는데 당나라 때 이를 부연하여 대곡(大曲)이 되었다. 산서(散序), 중서(中序), 입파(入破)의 세 부분이 있는데 수조가두는 중서의 제1장에 해당하여 두 곡조로 94자에서 97자로 이루어져 있다. 소식의 〈수조가두(水調歌頭)〉(중추(中秋))사가 유명하다.

29) 아름다운 풀이 어찌나 한결같이 푸르니 : 이 구절은 황정견(黃庭堅)이 소식(蘇軾)의 《수조가두(水調歌頭)》 내용 중 ‘밝은 달이 얼마나 있었던가[明月幾時有]’를 본떠서 지은 것이다.

30) 무릉도원 계곡 : 전설상에 존재하는仙境(仙境)인 무릉도원(武陵桃源)을 말하는 것으로, 도잠(陶潛)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비롯되었다. 〈도화원기〉에 의하면, 무릉에 사는 어떤 어부가 시내를 따라 올라가다가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仙境(仙境)을 만나 그곳에서, 진(秦)나라 때에 난리를 피해 그곳에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왔는데, 뒤에 다시 그곳을 찾아갔더니 흔적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陶淵明集 卷6》

31) 건염(建炎) : 남송 고종(高宗)의 연호로 1127년부터 1130년까지이다.

근심은 향초와 함께 양쪽에서 무성하리! 愁同芳草兩萋萋

또한 말하였다.

꿈에서 조용히 나부끼자 참모습 보이지 않고 歸夢悠颺見未真
수놓은 이불은 흡사 은은한 향을 품었나 繡衾恰有暗香薰
오경이 치니 누각의 봄은 확실히 지네 五更分得楚臺春

언어의 조탁이 자못 뛰어나다. 말년에는 부귀에 심취하여 문장을 짓는 일에 종사하지 않았다.

< 참고문헌 >

徐信義 撰, 《碧鷄漫志校箋》, 國立臺灣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81.
王灼 撰, 《碧鷄漫志》, 北京, 中華書局, 1991.
岳珍 著, 《碧鷄漫志校正》, 成都, 巴蜀書社, 2000.
신현석, 〈王灼의 詞學論 考〉, 《중국인문과학》 제15집, 1996.
이태형, 〈시대현실을 반영한 사론서 《碧鷄漫志》初探〉, 《中國語文 論譯 叢刊》 제24집, 2009.1.
이태형, 〈王灼의 詩詞樂關係考察〉, 《국제지역학논총》, 2011.6.

< Abstract >

《BiJiManZhi》 established a comparatively complete theoretics system concerning The origin and ontology of Ci poetry in view of philosophical cosmologist genesis and dualism. Wang Zhuo(王灼) put forward the following Ci Poetry of the Central Ideas. Wang Zhuo is literature,

theorists during the southern song dynasty. He achieved some success In the fields.

His 《BiJiManZhi》is the highest achievement. That is the earliest extant a ci theory monographs. This monograph related to Music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i, the Ci origin, Ci criticism and so on. That is a high works of data value and academic value. This article uses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mathematical statistics, and logic analysis method. Study ci poetry criticism theory and analysis aesthetic standards. The first part with a longitudinal perspective Wang Zhuo for CI, CI origin theology and part of speech features are discussed. The social background and scale master piece of Ci that had mainly probed the sources and evolution of poetry, ci and the southern song dynasty, made the question of their clear to break through then stereotypes of ci the southern song dynasty to live up to Ci for Poetry and offered the theoretical proofs for remaining the song like literary traits of ci.

Key Words : 왕작(WangZhuo), 남송(Southern Song Dynasty), 벽계만지(《BiJiManZhi》), 사학비평(Criticism of Ci Literature), 사학유파(Schools of Ci Literature)

